22. 킹 크랩 저녁식사

브뤼겐 구역을 둘러본 나는 광장으로 나와서 베르겐 어시장 쪽으로 향했다. 시간은 오후로 흘러가고 있었다. 아직 어두워진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지만 온통 잿빛이고 습하니 어두운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바람에 실린 비가 흩날리듯 내리고 있어서 우산을 펴 들고 가는 것이 무의미했다. 길에 걸어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산을 쓰지 않고 그냥 다닌다. 나는 광장에 서 있는 청동 동상 앞을 지나갔다. 루드비그 홀바이크라는 것을 알고 나니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동상이 아는 사람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홀바이크의 목에는 노르웨이 국기와 크리스마스 화환이 걸려 있었다.

홀바이크 동상을 지나 계속 걸어가던 나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비 내리는 거리 한복판에 사람 하나가 비닐 옷을 뒤집어 쓰고 앉아 있었다. 검은 옷에 검은 두건을 쓰고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듯 앞으로 손을 모으고 있다. 검은 옷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가톨릭 수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루터파 개신교 국가였던 노르웨이에 가톨릭 수사라니 어울리지 않았다.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꼼짝도 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니 무릎 꿇고 앉은 남자 앞에 빈 종이컵이 하나 놓여 있다. 걸인이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세계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일인당 국민 총소득 제 2위인 나라에 걸인이라니! 게다가 노르웨이는 총인구가 오백사십여만 명에 불과하다. 그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쏟아지는 돈으로 무엇을 했기에 걸인이 시내 한복판에 나와 구걸을 한단 말인가. 나는 걸인의 뒤를 지나 계속 앞으로 걸어 갔다. 마음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흘러갔다. 저 사람은 노르웨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외국에서 흘러 들어 온 집시일 수도 있고,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일 수도 있다. 설사 노르웨이인이라 할지라도 구걸을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부유한 나라 노르웨이 시내 한복판에서 걸인을 목격한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외국인들이 부자 강대국 미국에 와서 홈리스를 목격하고 받는 충격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정신없이 걷는 동안 베르겐 실내 어시장에 도착했다. 역시 실내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똑바로 피시 미 마켓으로 걸어가 어제 그 테이블에 앉았다. 아는 얼굴이라고 바이킹 아저씨가 반색을 하고 맞아 준다. 나는 또 아쿠아비트를 주문하고, 킹크랩 일인분을 주문했다. 마음 같아서는 한마리를 다 먹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쉬워서 연어 사시미와 연어알 초밥도 주문해 봤다. 노르웨이에서 먹으면 훨씬 신선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사각형 흰 접시에 얹혀져 온 킹크랩은 큼직한 다리 하나를 먹기 좋게 잘라 껍질까지 깨뜨려 나왔다. 포크로 그냥 꺼내 먹기만 하면 된다. 따뜻하게 데워 버터 소스를 뿌리고 그 위에 파슬리와 싱싱한 샐러드를 곁들였다. 아쿠아비트를 한모금 마시고 연분홍색 게살을 한 점 꺼내 먹었다. 은근한 버터 향에 쫄깃하고 담백했다. 평소에 먹던 킹크랩보다는 확실히 신선하게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또 아니다.

곧 이어 나온 노르웨이 연어 사시미와 연어알 초밥도 역시 신선했지만 크게 인상적이지는 않았다. 날로 먹는 해산물은 신선함이 생명이니까 만족하기로 했다. 킹크랩을 알뜰히 발라 먹고 사시미와 초밥도 깨끗이 비웠다. 계산서가 나왔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가격에 내심 놀랐지만 노르웨이 물가는 각오하고 있었기에 괜찮았다. 나는 아쿠아비트를 마저 마시고 이틀 동안 내게 맛있는 저녁식사를 준비해 준 바이킹 주인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베르겐 어시장을 떠났다.

부에나 팍 양로병원
Buena Park Nursing Center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통증관리, 투석케어
외상치료, 호스피스케어 등
Subacute Unit
Respirator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서비스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셜워커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www.buenaparknc.com
한국어: 562-240-3516 한국분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영어 : 714-828-8222 Fax: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Lic #762505
Zip(집)
쿨링·히팅
에어컨
전기
플러밍
히팅
714.293.9827
714.393.3691

플러튼 | 세리토스 | 사이프레스 | 라팔마 | 부에나팍 | 라미라다 | 라하브라
REDPOINT REALTY
17년 탑에이전트 경험으로 잘 팔고 사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칼럼니스트 (Since 2004~)
레드포인트 부동산 명예 부사장
독점 라하브라
2019년생 예쁜 새단지, 2,000sf, 방4 화3.5 업그레이드 많이한 새 집, 좋은 위치
$729,000
독점 사이프러스
IN ESCROW
방4 화2.5 단층집, Lot 7,500 뉴페인트, 나무 마루, 업그레이드 많이 한 옥스포드 하이 근접 렉싱턴 주니어, 사이프러스 하이
$659,000
독점 사이프러스
SOLD
방4 화2 리모델 다한 예쁜 집
$685,000
독점 부에나팍 창고 리스
8,800SF 5FWY와 Artesia Blvd가 만나는 상권 최고 사무실도 겸함
$11,000
독점 다이아몬드 바
방 4 화 2 리모델한 단층집 넓은 뒷마당 밝고 환한 남향집 리세스라잇,크라운 몰딩 좋은 학군
$789,999
플러튼
방5 화3.5 플러튼 요지 아래층 매스터 베드룸 넓은 뒷마당, 손볼 것 없는 집 최고 학군
$910,000
브레아
방3 화2.5 1996년생 하이실링, 굿 컨디션 좋은 위치의 남향 집 브레아 올린다 학군
$715,000
세리토스 타운홈
방3 화2.5 건평 1,830 SF, 콩코드 타운홈, 데이트 단지 하이실링, 91, 605 FWY ABC 학군
$625,000
카니 정 | DRE 01433245
714-244-7800
656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사이프러스 : $465,000 방 2 화 1 탱글우드 타운홈, 단충, 사이프러스 요지, 렉싱턴 주니어, 사이프러스 하이
부에나팍 : $670,000 방 3 화 2.5 2015년생, 건평 1,920 sf, 소스몰 건너편 좋은 위치
부에나팍 : $520,000 방 3 화 1.5 H Mart 옆 타운홈, 리모델 End Unit, 써니힐 하이, 렌트 잘 나가는 집
세리토스 : $740,000 방 3 화 2 마루 리세스 라잇, 예쁘게 단장한 단층집, 세리토스 하이도보, 도서관 도보거리
라팔마 : $519,000 방 3 화 1.5 부억 리모델, 하이실링 타운홈 좋은 가격 케네디 하이